

해남 원도심에 '땅끝 초콜릿 마을' 조성

원도심 상권활성화 5년간 추진
중소벤처부 공모 선정 60억 투입
읍내·성내리에 테마특화거리
수제 초콜릿 체험·판매장 운영

해남군이 '땅끝 초콜릿 마을'을 지역 브랜드로 내걸고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땅끝 초콜릿 마을은 '연인들의 성지, 초콜릿 체험과 문화가 있는 곳, 땅끝 초콜릿 마을'을 핵심 콘셉트로 해남읍 상권의 중심지인 읍내리·성내리 일원에 테마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수제 초콜릿 체험장과 판매장 등 거점 공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상가들은 초콜릿 복합매장화를 추진하고 신규 창업도 지원하게 된다.

특히 해남군 특산물과 초콜릿을 결합해 해남에서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수제 초콜릿을 개발, 판매할 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객 유입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초콜릿을 주제로 한 상권 조성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특색있는 개별여행을 선호하는 2030 세대와 어린 자녀가 있는 3040 가족을 주 타겟층으로 해 수제초콜릿을 체험하고, 구입할 수 있는 지역 고유의 로컬브랜드로 관광명소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읍내리 초콜릿 점포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도 시작되며, 앞으로 5년간 초콜릿 관련 공동브랜드 및 스토리텔링 개발과 특화상품 개발, 여행객 유입 이벤트 행사와 마케팅이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되는 상권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국

비 30억원 등 총 60억원이 투입해 매일시장을 비롯해 읍내리와 성내리 상점가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사업은 (재)해남문화재단에 신설된 상권활성화팀에서 실시하며, 민·관·상인·전문가로 구성된 상권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해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군은 지난 26일에도 군정 대회의실에서 원도심 상권활성화 협의회를 개최하고, 해남군 땅끝 초콜릿 마을 조성사업의 세부 시행 계획을 논의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한반도의 시작인 땅끝해남의 이미지를 담아 초콜릿 마을이라는 지역브랜드 전략으로 상권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초콜릿 마을이 상권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지역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목포해수청 항로표지 추돌 사고 예방 캠페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태환)이 최근 항로표지 선박 추돌사고 및 선박 계류행위 예방을 위한 '항로표지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목포여객선터미널과 목포 북항을 이용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한 이번 캠페인에서는 항로표지 접촉사고 방지요령, 사고 발생 시 신고방법, 항로표지시설 선박 계류 금지 등이 수록된 홍보자료를 배포했다. <사진> 안전한 뱃길을 표시해주기 위해 항로나 암초 등에 설치하는 등대, 등표, 등부표 등 도로의 신호등에 해당한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선박이 항로표지에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는 물론 막대한 재산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목포해수청은 항로표지시설 선박 계류행위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해 실시하고 계류 선박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창승 목포해수청 항로표지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도를 높이고 어업종사자들의 안전의식 함양에 앞서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완도군 153억원 투입 '해안도로 관광 경관 명소화' 추진

2027년까지 데크길·캠핑장 조성

완도군이 해안도로 관광 경관 명소화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완도군은 문화체육관광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용역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은 2032년까지 10년 동안 총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단계 '해안 도로 관광 경관 명소화 사업'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총 153억 원을 투입해 서부권 77해안도로에 조성된 미소공원, 갯바람공원, 일몰공원에 관광 안내소와 미니 도서관, 간이 캠핑장 등을 조성한다. 완도수목원과 청해포구 해신 세트장을 잇는 길에 수려한 해안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해안 데크길'도 만든다. 군은 지난해 11월 전남도 투자 심사를 통과한 후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방문자 센터 건립과 해안 데크길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 관광객



완도군, 해안 도로 관광 경관 명소화 사업 조감도. 서부권 77해안도로. <완도군 제공> 유입 효과는 물론 해양치유센터를 비롯한 해양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안도로 관광 경관 명소화 사업이 완도가 남부권 해양관광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 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신안군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참여자 모집

신안군이 야생조류서식지 조성 사업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사업 참여자를 오는 4월10일까지 모집한다. 철새 주요 이동 경로이자 중간 기착지인 흑산면에 철새 먹이를 경작하고 보상을 받는 사업으로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사업은 봄, 가을 철새들의 주요 이동 경로인 흑산면을 찾는 다양한 철새들에게 휴경지에 친환경적 조(서숙)와 수수 등 철새 먹이를 재배 후 수확하지 않고 철새에게 먹이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참여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사업지구인 신안 흑산도는 철새들의 주요 이동 길목으로 봄, 가을철 다양한 철새들이 관찰되고 있다. 철새들에게 지친 체력 보충을 위해 쉬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내에 기록된 600여 종 중 국내 최대인 420여 종이 관찰될 정도로 철새들의 주요 거점이기도 하다. 신안군 관계자는 "신안은 생물권보전지역,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서식지로 매년 다양한 철새들이 정기적으로 통과하는 중요한 철새 중간 기착지"며 "지속해서 안정적인 서식지 조성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신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목포시, 30년 이상 노후 상수도관 6.5km 교체

53억원 투입 7개 구간

목포시가 올해 사업비 53억원을 투입해 버스터미널 주변 등 7개구간 총연장 6.5km에 이르는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한다. 지난 3월 초 착공한 목포과학대·석현동 버스차고지 구간 2.9km와 동초등학교·산정농공단지 구간 1.2km은 평소 교통량이 많은 구간으로 오는 10월까지 완료하고, 연동초등학교 등 5개소 2.4km구간은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방 상수도현대화사업(2019~2024)의 일환으로 매설한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수도관 중 부식이 심한 정도에 따라 시급성을

감안해 교체 대상을 선정했다. 시는 지난 해에도 이로시장 주변을 비롯한 6개소의 수도관 4.6km를 정비해 누수로 인해 새나가는 수돗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원수구입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를 높였다. 시는 공사기간 중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굴착 구간은 당일 복구 및 임시포장을 시행하고, 교통신호수를 배치해 안전관리에 나선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올해 30년 이상 경과 노후 상수도관 6.5km를 교체한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무안군 주민안전보험 보장 29종목으로 늘린다

항목 따라 최대 2000만원 지급

무안군이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주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운영한다. 주민안전보험 대상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등 총 29종목이며, 각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사고일 당시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주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보장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연재해 상해후유장애와 사회재난 상해후유장애,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및 치료비(벌, 뱀, 포유류 한정), 화상 수술비 등 5종목이 추가된다. 보험금 청구는 보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

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안내에 따라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안전총괄과(061-450-5813)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면서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